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2탄

판소리 알린 '서편제'는 나의 분신 세계화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 필요



김명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우리 소리, 우리 음악'

지난 24일 오후 4시 빛고을문화관 4층 다목적실.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 공동주최로 열린 '문화나무 상상강좌 2'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영화 '서편제'(1993년작)의 스크린속으로 들어간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번째 문화나무 상상강좌의 주인공이 김명곤(59)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바로 '서편제'의 소리꾼 유봉이였기 때문이다. 강의 실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시민들은 마치 레드 카펫 위의 스타를 만난 듯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 소리, 우리 음악'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좌는 '시대의 광대'로 불리는 그의 예술적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방학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온 그는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명창 박초월 선생의 학원에 등록했다. (소리꾼으로서) 어릴때가 짝이 없었던 그를 박초월선생이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는 '서둘러'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이었다고 한다. 엘리트가 우리 소리를 배우겠다는 게 기록해놓은 것이다. 두달 후 학원비를 내기가 어렵게 되자 박 선생은 학원에서 전학도 받고 자신의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조건으로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박 선생이 그를 '특별대우'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음악을 해왔지만 소리꾼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어요. 서울대생이 (남들이 업신여기는) 판소리를 배우겠다고 하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리만족을 느껴셨던 것 같아요."

는 한국영화 사상 첫 관객 100만명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우는 등 대박을 썼다. 서편제는 김명곤의 대표작이자 '분신'이 됐다.

▲우리 소리의 세계화를 꿈꾸다

'서편제'의 흥행은 그에게 문화행정가로서의 또 다른 삶을 열어주었다. 영화에서 소리꾼으로 감명받은 인상을 남겼던 그는 특유의 관대정신과 현장중심의 문화행정으로 국립중앙극장과 문화부 장관직을 잇따라 훌륭히 수행해냈다.

하지만 소리꾼 유봉으로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서편제'에서 "양놈노래가 관을 치고 있는데 한물간 소리를 왜 해느냐"며 비웃는 친구(나산)를 향해 "판소리가 관을 치는 세상이 올테니 두고 바라"고 장담했지만 여전히 우리 소리는 '변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국악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국립극장장 시절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나 프랑스 음악 축제 등에서 한국의 판소리, 승무를 공연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연기하는 오페라나 뮤지컬과 달리 소리꾼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맡는, 그것도 4~5시간 공연하는 판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김 위원장은 "판소리가 대중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가락을 들려주는 교육의 힘이 크다"면서 "판소리의 내용도 요즘 시대에 맞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 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제작사 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서편제'

▲서울대 독문학도, 판소리에 꽃피다

사실 김 위원장 만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도 드물다. 잡지사 기자를 거쳐 연극배우, 영화배우, 연출가, 국악인, 민족극 운동가, 전 국립극장장, 전 문화부 장관 등 말 그대로 종합예술인이 따로 없다.

그가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서울대 독어교육학과 3학년 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 요양하던 중 전복 김밥에 사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의 집에 머물던 그는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여인의 애절한 소리를 듣고 전율을 느꼈다.

"그때만 해도 음악 하면 클래식이나 오페라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평소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려준 부모님과 피아니스트가 꿈인 누나의 영향이 컸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지만 마디마디 가슴을 파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내 인생의 불날, '서편제'를 만나다

대학졸업후 '뿌리 깊은 나무' 기자로 일하던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까 때문에 연극과 스크린으로 활동무대를 넓혔다. 영화 '바보선인'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로 제법 알아보는 영화팬들도 생겨났다. 1992년 어느날 임권택 감독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이청준의 소설 '서편제'를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데 연기도 하고 소리도 할 줄 아는 배우는 당신이 유일하다"며 소리꾼 유봉역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주변에선 "망할게 뻔한 영화에 뭐하러 출연하느냐"고 말렸지만 한 두 명의 관객에게라도 판소리를 알릴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영화제작사 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서편제'



지난 24일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 김명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이 '우리 소리, 우리 음악'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립합창단 내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사진) 제 142회 정기연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새 봄을 여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이수인 곡 '서생 배꽃', 함태균 곡 '시냇물을 건너다' 등 봄내음 가득한 곡들을 선사한다.

또 막스 브루흐의 '모니 세레나데' 등 남성합창과 여성

합창곡을 들려주며 정달기 곡 '시래기', 이순교 곡 '짜장면'도 무대에 올린다. 피아노 반주는 권현·임리라씨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로고스 유스챔버 오케스트라 두번째 정기연주회

로고스 유스챔버 오케스트라 두번째 정기연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단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광주 심포니오케타 단장)씨가 지휘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프란체스코 제미니아의 합주협주곡 '라 폴리아'를 들려준다.

'라 폴리아'는 하나의 아리아 선율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주시켜 만드는 변주곡 양식의 무곡을 일컫는다.

또 카터스 음대, 독일 예센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쉘

리스트 이엘렌씨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다.

마지막 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교향곡 4번'(단순 교향곡)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에 시인 이은봉씨

한국작가회의(이사장 구중서)의 사무총장에 시인 이은봉(58·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사진)씨가 선임됐다.

이씨는 지난 26일 열린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 돼, 위임 투병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소설가 김남일(54)씨의 잔여임기 1년간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씨는 "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 사태 등 정부와 갈등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단체인 만큼 작가들의 '저항의 글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4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한 이씨는 1985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제창립과 1987년 민족문화작가회의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작가회의의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정신을 계승한 국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문인단체로 2007년 '민족문화작가회의'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한 이후 자유실천위원회회를 비롯해 여러 위원회와 장르별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월에 읽으세요"

간행물윤리위 '3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3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작가 고(故) 이운기씨의 유고 소설집 '유리그림자'(민음사 펴냄·사진)와 산문집 '위대한 침묵' 등 분 이별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2011년 '3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는 복식·장식품·축제·혼례·상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구려 유민사를 치밀하게 추적한 김인희씨의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푸른역사 펴냄), 문화 작품을 통해 옛 그림을 들여다본 고연희씨의 '그림, 문화에 취하다'(아트북스 펴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중 하나로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를 무덤으로 옮기는 상여 곳곳에 부착했던 형상인 꼭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꼭두랑 놀자'(청년사 펴냄)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목록과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ec.or.kr)의 웹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제1탄 고가약소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청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약소리탕
오리탕 5,000원	1마리 36,000원
11:30~1시 까지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웨딩전문 1급관광호텔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1. 광주의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주 가족 전용 VIP룸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하니문 톨러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헬퍼비와 패케수모서비스)
10. 타 예식장 식비대비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 - 3,4.5, 10, 11, 12월 / 2만8천원 - 1,2,6,9월 / 2만6천원 - 7,8월)
11. 이브닝예식 뷔케이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톨러서비스
- 하객 400명 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1F 아트홀(150석) 5F 벨라지오홀(180석)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30가지) 객실료 50% 할인 7만원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차령동 1261번지(상무지구 톨러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